

전북영화사의 형성 과정 연구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을 중심으로

황태목*

목 차

- | | |
|------------------------------|------------------|
| 1. 문제제기 | 4. 김금철과 김보철의 관련성 |
| 2. 해방 전후 전북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극장 동향 | 5. 나가는 말 |
| 3.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와 영화인의 활동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이 글은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과 군산지역 영화사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형성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북영화사 서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수정하고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부분적이거나 해방기 군산에서 활동했던 영화제작사와 영화인들의 흔적과 궤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당시 문헌들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영화사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전북영화사와 한국영화사의 토대와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도모하였다. 실제로 김보철의 생애나 영화계 활동에 대한 기록은 전북영화사나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지역의 영화사나 영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영

*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전임연구원, E-mail: khtmg@hanmail.net

화적 자산들은 앞으로 한국영화사 연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해방기, 전북영화사, 동양영화사, 보성영화사, 김보철프로덕션, 김보철, 김금철, 이만홍

1. 문제제기

김보철(金寶哲, 1919-1962)은 그동안 전북영화사나 한국영화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이다. 그러나 그는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제1세대 영화인이었으며, 1949년에는 전북영화사와 한국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성벽을 뚫고>(한형모) 제작에 참여한 전문 영화인이었다. 또한 1961년에 <일편단심>(김수용)을 끝으로 영화계 활동을 마감하기까지 이 집길, 이만홍, 한형모, 이강천, 김수용, 황해, 복혜숙, 김진규, 주중녀, 백금녀, 유두연, 조미령, 허장강, 신영균 등 기라성 같은 영화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한국영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다진 제작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김보철에 대한 조사·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화사적으로 분명 한 시대를 장식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시기에 활약한 영화인들 가운데서 김보철만큼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도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은 중앙 중심의 연구 경향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김보철이 전북 출신이 아니라는 것과 그와 연관된 문헌 자료나 증언이 부족하다는 것,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필름이 유실되거나 찢겨 나간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작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물론 몇몇 인사들의 증언이나 기록을 통해서 단편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나마도 실증적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김보철에 대한 온당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의 이력과 활동 역시 많은 부분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문발표가 없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김보철은 그동안 전북영화사와 한국영화사의 경계 바깥에 놓여 있는 영화인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의 활동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영화사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의 작품과 영화계 활동이 전북영화사의 계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화사적으로 볼 때, 전북영화사의 기원은 해방기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에서 비롯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당시 영화 제작의 불모지였던 전북 군산에 제작사를 설립하고 영화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친 전북영화계의 선구자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전북영화사에 남긴 발자취는 굵고 뚜렷하다.

본고가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와 이만홍의 활동을 검토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 군산에서 활동했던 영화제작사와 이만홍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면서 김보철이라는 제작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가 설립한 영화사의 활동에 대해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 그러나 이 논문은 김보철 개인에게 서술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상기 논문을 보고 연락해 온 김보철의 장남(김재우)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김재우의 도움으로 김보철의 가족사와 행적을 부분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²⁾ 이후 김보철에 대한 논문계획을 세웠으나 몇 가지 난점으로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년을 보내었다. 그러던 차에 전북 최초의 극영화 <끊어진 향로>의 영화제작사는 R.X.K프로덕션이 아니라 보성영화사이며, 그 제작자도 김보철일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그의 흔적과 궤적을 제대로 살펴 봐야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 전북의 극장(사)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³⁾ 이러한 선행 연구는 전북 극장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와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연구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영화인(사)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 만큼 영화인에 대한 개인사적 조사나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영화인 김보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안이다. “이 고장에서 <성벽을 뚫고>를 제작하였던 金寶哲이라는 사람도 그후 영화계에서 그 이름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전업하였든지 아니면 가명으로 행세를 하였던 분이 아닌가 싶다.”⁴⁾라고 한 원로영화인 탁광⁵⁾(卓光, 본명 탁형연)의 말

1) 황태목, 2015,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 연구』, 『우리문학연구』 48, 우리문화회, 427-453쪽 참조.

2) 김재우(남, 1962년생) 2017년 1월 19일, 2월 2일, 3월 14일 전화인터뷰, 2월 8일 대면 인터뷰

3) 전북 지역 극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위경혜, 2007, 『호남의 극장문화』, 다할미디어 ; 장준갑·김건·이상훈, 2014, 『전북의 극장사』, 『전북사학』 45 ; 김남석, 2020, 『전북의 지역 극장』,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참조.

은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후배이자 동료 영화인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는 영화계에서 매몰된 영화인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김보철은 이만홍, 이강천과 함께 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 중흥의 토대를 구축한 제1세대 영화인이었던 만큼 이제라도 호명하여 차근차근 규명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영화계 활동과 그 성과가 온전히 복원되어야 전북영화사와 한국영화사의 여러 틈새도 제대로 메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방기 군산에서 발행한 『군산신문』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신문과 문헌(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참고하여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과 맞물린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북영화사 기술과 연관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수정함으로써 부분적이거나 오류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해방 전후 전북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극장문화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 해방기 전북 최초의 영화와 영화제작사의 중심에 자리한 김보철을 중심으로 보성영화사와 김금철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김보철의 영화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 영화(인)의 저변과 토대,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2. 해방 전후 전북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극장 동향

해방기 전북의 영화제작사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방기 이전 전북의 극장사를 간단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전 전북 지역 극장⁴⁾의 역사는 개항장이 있던 군산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사회에 상설 옥내극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부산(1877), 원산(1879), 인천(1883), 목포(1897) 등 전국의 개항장에서인데, 군산(1899)도 예외는 아니었다. 1899년에 개항한

4) 탁광, 『전북영화이면서』, 한국영화인협회전북지부, 1995, 174쪽

5) 탁광(1923-1999)은 이만홍, 이강천 등과 함께 1950년대 전북영화계의 초석을 세운 영화인이다, 1999년 77세의 나이로 영면하기까지 고향인 전주에서 지역 영화의 중역을 도맡았던 전북영화사의 산증인이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83년에는 전라북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6) 이 글에서 극장(劇場)은 이라는 명칭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기능이 분화되기 이전의 연희의 공간이자 강연장, 연회장, 무대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로서 무대와 관객석을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군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몰려들면서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고, 이들을 위한 대중오락장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북 지역에 상설 옥내극장 형태인 일본식 극장이 생겨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1900년대 군산에는 전북 최초의 극장인 명치좌(明治座)와 군산좌(群山座)가 등장했는데, 두 극장은 전북 지역 극장의 시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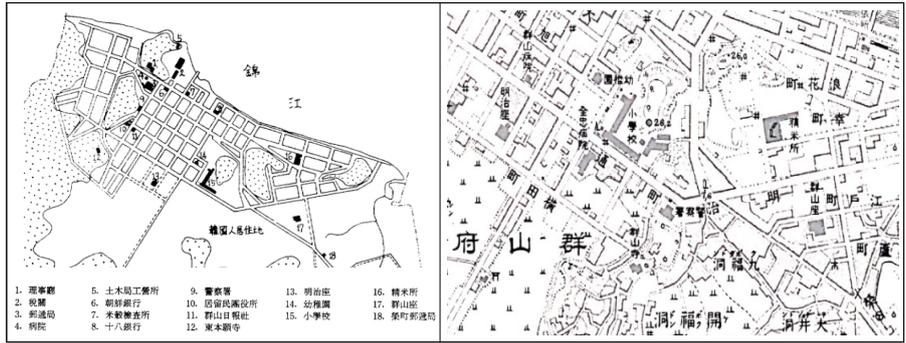


그림 1. 1906년 군산시가지도⁷⁾

그림 2. 1916년 군산시가지도⁸⁾

전북 최초의 극장인 명치좌와 군산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06년과 1916년에 작성된 군산시가지도에 명치좌와 군산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극장 모두 1906년 전에 개관하여 1916년 시점까지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치좌의 위치는 좌측 지도 13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의 지도를 참조하면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명치정(明治町)과 횡전정(横田町) 사이(현 중앙로 1가 10-11번지 희락 일식집 주변)에 자리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1906년 지도상에서 명치좌의 서쪽으로는 군산일보사(11번), 거류민단사무소(10번), 신사(12번)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동쪽 주변으로는 소학교(15번)와 유치원(14번)이 위치하고 있었다. 군산좌의 위치는 좌측 지도 17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우측의 지도를 참조하면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강호정(江戸町) 일대(현 죽성동 29-2번지 동광한의원 주변)에 있었음을

7)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 도시 특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0-2, 대한지리학회, 90쪽 <그림 8> 참조.
 8) 김남석, 2020, 『일제 강점기 군산좌의 설립 과정과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05, 국토연구원, 198쪽 <그림 2> 참조.
 9) 김남석은 윤정숙이 인용한 1906년 군산시가지도를 근거로 명치좌의 위치를 옥정(현 영화동)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상의 위치를 혼동한 착오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김남석, 2020, 『전북의 지역 극장』,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8쪽-30쪽 참조.

알 수 있다.

군산 인근 도시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극장이 개관하였다. 1910년대에 이리좌(현 익산), 전주좌(전주), 추산좌(정읍)가 문을 열었고, 1920년대에는 군산극장(군산), 희소관(군산), 제국관(전주), 정읍극장(정읍), 김제좌(김제), 남원극장(남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 극장으로 자리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군산좌가 군산극장과 별개의 극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북의 극장들은 전주좌와 전주극장처럼 하나의 극장에 각각 두 개의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리좌와 이리극장을 비롯하여 김제좌와 김제극장, 추산좌와 추산극장의 경우 등이 혼용해서 사용된 경우라고 한다.¹⁰⁾ 이처럼 하나의 극장에 두 개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현상은 전북 지역 극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극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지역 극장은 대부분 항구나 기차역 주변의 변화가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전북의 지역 극장도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명치좌와 군산좌는 항만과 군산역 사이에 유동 인구가 많았던 명치정과 강호정에 위치하였고, 이리좌는 이리역 주위의 가장 변화가였던 영정통(현 평화동)에 세워졌으며, 전주좌도 도청 인근 고사정¹¹⁾(현 고사동)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에서 볼 수 있듯, 초창기 전북의 지역 극장은 대체로 항구와 철도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지역은 행정 기관이 밀집해 있고, 변화한 상가와 주거지를 배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극장 입지로 적합한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리적, 상업적 특성으로 인해 명치좌와 군산좌, 그리고 이리좌와 전주좌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10) 이에 대해서는 김남석, 위의 책 참조.

11) 김남석은 위의 책(182쪽)에서 신파연극 유일단 일행이 전주에서 극장을 임시로 세우고 공연하였다는 1914년 12월 신문 기사를 근거로 이 시점에는 전주에 공연장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오류로 여겨진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13년 5월 소인연예회(素人演藝會)를 전주좌에서 개최한다는 소식과 1914년 1월 애국부인회 전북지부에서 회원 가족을 위한 위모회를 전주좌에서 연다는 기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남석은 전주좌(전주극장)의 위치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1918년 1월 15일자 신문 기사에는 전주좌 개축계획이 소개되고 1918년 10월 19일자 신문에는 전주좌를 고사정(高沙町)에 신축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을 참고한다면 전주좌는 1913년 5월 이전에 세워져 운영되다가 1918년 10월에 와서 다시 개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위치가 이전된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전주좌의 공연 내용과 개축 기록에 대해서는, 『最近의 全北: 素人演藝會』, 『매일신보』, 1913.5.1, 1쪽 / 『地方每日: 全羅北道 全州』, 『매일신보』, 1914.1.30, 4쪽 / 『全州座 改築計劃: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 『부산일보』, 1918.1.15, 5쪽 / 『全州座 開場式』, 『부산일보』, 1918.10.19, 2쪽 참조.

로 부상할 수 있었다.

한편 1908년 전군도로와 1912년과 1914년 군산선과 호남선이 개통하면서 군산-이리-전주는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산과 이리와 전주 사이의 밀착과 연계는 각 지역 극장을 기점으로 하는 극단의 순회공연 루트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실제로 당시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군산좌와 이리좌와 전주좌의 순회공연이 하나의 흥행 루트로 묶여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순회 일정을 통해, 이들 극장은 공연장과 문화콘텐츠를 상호 공유할 수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극장문화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전주좌와 이리좌는 군산좌에 비해서 더 늦게 개관하였기 때문에 군산좌의 문화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직간접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 당시 전북의 지역 극장 대부분은 일본인 흥행업자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극장 초기에는 일본 신파극이나 가부키와 같은 일본인을 위한 공연물이 주로 무대에 올랐으나 순회 단체들의 방문을 계기로 조선의 창극이나 국극, 악극, 기예 등 조선인을 위한 공연물도 적극 수용되었다. 이후 1920년대를 지나며 전북의 지역 극장은 영화 상영이나 순회 단체의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시민대회나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다목적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전북 지역 극장에 대한 신문 기사는 당시 극장의 문화적 프로그램이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¹³⁾ 이러한 기록들은 일제강점기 극장의 역할

12) 군산과 이리와 전주 지역 극장의 순회공연 소식을 낚긴 신문기사 제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演戲 전주의 유일단』, 『매일신보』, 1914.12.10. / 『演戲 군산의 유일단 일행』, 『매일신보』, 1914.12.15. / 『이리좌의 녹가(緣家)일행』, 『부산일보』, 1917.7.3. / 『青年演藝團 巡了』, 『동아일보』, 1921.4.26. / 『公州青年巡劇團』, 『매일신보』, 1921.9.26. / 『社告: 오날, 전조선순회활동사진회, 夜1회 全州劇場에서, 23일 밤 1회 群山座에서』, 『매일신보』, 1922.4.22. / 『土月會 群山서 興行, 本報支局 後援으로 三日間』, 『동아일보』, 1925.12.14. / 『16일부터 太陽劇團 金堤座에서 開演』, 『매일신보』, 1933.1.19. / 『中央舞臺 地方公演』, 『매일일보』, 1938.2.15. / 『劇研座 公演日程 京釜兩線 湖南巡廻』, 『동아일보』, 1939.5.7.

13) 전북 지역 극장의 지역민 관련 행사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 제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통신: 자선음악연주회, 曙潮會의 주최로 7일 全州座에서』, 『매일신보』, 1920.8.12. / 『幼稚園 歌劇會, 11日 全州座에서』, 『매일신보』, 1922.2.11. / 『이리시민대회, 수해 후의 시설에 관해 이리좌<裡里座>에서 시민대회 개최, 결의문을 가결해』, 『매일신보』, 1925.7.29. / 『군산부민대회 8일 군산좌에서』, 『조선일보』, 1926.8.8. / 『운송합동반대 群山시민대회, 群山座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8.2.22. / 『全州一普 學藝會

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방 이전 전북 지역 대중문화의 흐름은 극장산업이 주도하는 형세를 띠고 있다.

한편 해방은 한국사회에 전례 없는 인구 이동을 초래하였는데,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군정과 정부수립기 동안 약 3만 3천 명 이상의 일본인이 전북을 떠났고, 약 37만여 명에 달하는 귀환동포와 월남민이 전북에 대거 유입되었다. 그 결과 전북지역의 인구는 해방 직전인 1944년에 1,674,292명이었던 것이 1949년에는 2,050,485명으로 대략 4년 사이에 1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양상은 군산지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 군산의 인구 증가율은 전북 평균 보다 높은 25.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귀환동포의 유입이 군산지역에 집중된 데에는 군산항을 통해서 이들의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변동 속에서 일본인 소유 극장들은 미군정청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가 후일 소수의 조선인에게 헐값에 불하되는데, 해방 직후 군산극장과 희소관

開催 全州座에서, 『매일신보』, 1928.2.16. / 『군산研藝會 新舊獨唱大會 참가자 다수』, 『조선일보』, 1928.4.9. / 『시민위안 映寫大會』, 『조선일보』, 1928.11.19. / 『白鳥會 試演』, 『조선일보』, 1930.3.12. / 『群友會 주최 群山시민대회, 제이보교 기부금과 기성위원 책임문제로 來 십이일 군산극장에서』, 『중외일보』, 1930.4.6. / 『全州都市金組 臨時總會 全州座에서』, 『매일신보』, 1931.11.13. / 『愛國機獻金 映畫會開催 南原劇場에서』, 『매일신보』, 1932.4.16. / 『全州郡教育協會主催 各校聯合音樂會 四五兩日間全州座에서開催』, 『매일신보』, 1932.8.4. / 『裡里幼稚園同情音樂會, 來七日 裡里座서』, 『동아일보』, 1933.10.1. / 『군산지국 주최 김훈군 독창회 이십이일 군산 희소관서』, 『조선일보』, 1936.8.19.

14) 표 1. 해방 전후 전북과 군산의 인구증가율

	1944	1949	증가수	증가율(%)
전국	17,053,937	20,188,641	3,134,704	15.5
전북	1,674,692	2,050,485	375,793	18.3
군산	57,589	77,447	19,858	25.6

위 표에서 보듯 해방기 전북과 군산의 인구증가율은 각각 18.5%와 25.6%대로 전국 평균 15.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동이 일본인의 이주와 귀환동포의 유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은 자명하다. 해방과 더불어 약 3만 명 이상의 전북 거주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북의 인구 증가는 40만 명을 헤아리고 인구증가율도 20%로 증가하게 된다. 또 귀환동포의 경우 일본, 만주, 중국, 사할린 등에서 여러 차례 유입되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인구조사에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북과 군산의 인구증가율은 위 표의 수치보다는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통계포털 통계목록 전국 구,시,군 총인구 표(1944-1949) 참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 TLE&parmTabId=M_01_01&parentId=A.1;A_7.2;&outLink=Y#content-group(검색일: 2022.9.20.)

을 인수한 김봉희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당시의 전북지역 극장과 사주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1945년 12월 전북의 극장 상황¹⁵⁾

극장명	사주	소재지
제국관(帝國館)	부영(府營)	전주부 대정정(大正町) 2정목 27
희소관(喜笑館)	김봉희	군산부 개복정(開福町) 1정목 44
군산극장(群山劇場)	김봉희	군산부 개복정(開福町) 1정목 67
정읍극장(井邑劇場)		정읍 수성리(水城里) 373
김제좌(金堤座)		김제읍 요촌리(堯村里) 205
보국관(報國館)		남원읍 하정리(下井里) 12-2
이리좌(裡里座)	김삼만	이리읍 대정정(大正町)
소화극장(昭和劇場)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86

이처럼 극장의 판도는 해방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일제가 상영 금지했던 영화들이 본격 해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⁶⁾ 1940년대 일제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전쟁 완수를 위해 병력 동원을 강조하는 일종의 목적극과 같은 영화만을 허가했었는데, 해방직후 미군정청에 의한 영화사건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자유상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¹⁷⁾ 일본인 소유의 극장들이 미군정청에 의한 적산처리가 이뤄진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였다. 일본식의 극장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¹⁸⁾

15) 『전국 劇場表-1945년 12월 현재, 예술통신 조사실 집성』, 『일간 예술통신』, 1945. 12.20.-21.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1508100022>
(검색일: 2022.8.24.)

16) 당시 해금된 작품 목록은 ‘<7처녀>(이태리 작품), <여자만의 도시>(이태리 작품), <몬테질의 상속자>(이태리 작품), <심청>(조선영화), <대장 부리마 신관>(불란서 작품), <소년 슈마리에 감격>(불란서 작품)’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군 제1차 검열에 과거 상영금지 됐던 미공개 작품 등 朝映 제출 6작품 전부 통과』, 『일간 예술통신』, 1945.10.4.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1508100022>
(검색일: 2022.8.24.)

17) 『상영자 자신이 검열관이 되라! 다시 영화 사전검열제도 폐지!』, 『일간 예술통신』, 1946.2.16.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1508100022>
(검색일: 2022.8.24.)

18) 『若草町劇場, ‘수도극장’이라고 改稱』, 『일간 예술통신』, 1945.10.15.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1508100022>
(검색일: 2022.8.24.)

그런데 일제가 물러가면서 극장가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지만 작품 수는 빈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새로운 영화를 만들 자본과 인력이 부족했고¹⁹⁾ 마땅한 수입배급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일제강점기에 상영됐던 구작 조선영화가 버젓이 등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외화가 버젓이 상영되기도 했던 것이다.²⁰⁾ 이처럼 당시의 극장가는 해방의 환희와 식민지 청산을 전하는 <해방뉴스>가 제작되고 상영 금지 영화가 풀리는 등 그야말로 해방구와도 같았으나 영화의 제작과 배급, 영화인 조직의 좌우분열과 같은 또 다른 이슈로 혼란을 겪는 아노미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전북의 극장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3.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와 영화인의 활동

한편 해방은 중앙 차원의 영화사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사의 설립을 앞당기는 계기도 되었다. 이 시기 영화 제작은 주요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기 전북의 경우에는 군산을 중심으로 영화 제작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 무렵 군산지역 극장들은 미공군부대에서 유출된 16mm 필름을 상영했는데, 군산 출신의 원로 영화인 최석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렇지, 일본영화는 해방 이후에 못 보게 하는 거지. 미국영화는 미군 위안 상영을 하는 거야. 병영에서 지금도 밤에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더 많이 했어. 그 병영에서. 군산에는 비행장이 있으니까. 비행장에 미군이 많이 주둔을 했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빼오는 거야. 그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빼와서 그걸 필름을 빼와서 그것을 훔쳐서 돌리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만 공군한테 보급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영화도 많이 와요. 거기는 필름도 좋은 것들이 많

19) 해방기 4년 동안 제작된 한국영화 작품 수를 보면, 1946년 4편을 시작으로 1947년에 13편, 1948년에 22편, 1949년에 20편 등 총 59편으로 확인된다.

20) 「밀수입 영화 단속 군정청에서 주의」, 『일간 예술통신』, 1946.3.19.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201508100022>
 (검색일: 2022.8.24.)

이 오고 직수입해서 바로 본토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왔어요.²¹⁾

여기에 경향각지로부터 모여든 영화인들의 영화 제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군산은 영화의 소비지에서 영화의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당시 주요 도시였던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세 편과 두 편의 작품만이 만들어진 것에 비해²²⁾ 군산에서 두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해방기 한국영화사에서 군산이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해방기 군산에서의 영화 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전북영화사』와 『전북영화이면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① “1948년 군산에 당시 일본에서 영화를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덟 분 중 한 분인 이만홍이라는 분이 오시면서 바로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 분이 만든 영화가 『끊어진 향로』라는 영화인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게 군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의미는 전주에서 활동한 중요한 분들이 군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4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까지 군산 분들이 많아요. 문화, 예술, 연극, 체육인 등등”²³⁾

② 그(이강천-인용자 주)는 1920년 12월 생으로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군산에 잠깐 머물렀다. 군산에서 미술하는 동료들과 군산중학 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아주 정착하게 되었다. 그 때 신문기자를 하던 李貞善 씨와 친분을 갖게 되었고 시나리오를 쓰던 그의 소개로 영화에 뜻을 두고 있던 李萬興(감독)과 李集吉(배우)을 알게 되었다. 우연하게도 李씨들만 모이게 된 이들은 R.X.K ‘프로덕션’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어 李萬興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던 ‘끊어진 향로’라는 16mm 작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²⁴⁾

21) 한국영상자료원 편, 2004, 『한국영화를 말한다: 1950년대 한국영화』, 이채, 279쪽

22) 정중화, 2001, 『대구 지역 영화사』, 영상예술학회, 『영상예술연구』1호, 2001, 210-212쪽과 정봉석, 1997, 『부산영화사』, 『항도부산』14호,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331-333쪽 참조.

23) 조시돈·김건·이미경·김광희 공저, 2006, 『전북영화사』, 신아출판사, 201쪽

24) 탁광, 『전북영화이면서』, 앞의 책, 162쪽

①은 전라북도 체육회 상임고문을 역임한 이인철, ②는 전북 지역 원로영화인이었던 탁광의 회고담이다. 이 글들은 비록 회고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1948년에 전북 최초로 제작된 영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영화사에 관한 서술 자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이만홍이 군산에 들어온 시기이다. 이인철은 그가 1948년 군산에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오류로 보인다. 이만홍이 1946년 5월에 창간한 『군산민보』의 기사를 역임했다고 한 당대의 문헌이 있고²⁵⁾, 1947년 11월에 창간한 『군산신문』의 기자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²⁶⁾, 그가 군산에 들어온 시점은 적어도 1947년 전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고향인 함경남도 안변에서 단신으로 남하하여 군산에 터를 잡고 생활했다고 한 이만홍의 여동생 이영숙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²⁷⁾

둘째, 전북 최초의 영화인 <끊어진 항로>의 제작사 문제이다. 현재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²⁸⁾와 디지털군산문화대전²⁹⁾ 등에는 <끊어진 항로>의 제작사가 R.X.K프로덕션으로 되어 있고, 연구자 역시도 이전 논문에서 R.X.K프로덕션이 <끊어진 항로>의 제작사라고 기술한 바 있다.³⁰⁾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 여러 기록을 통해 <끊어진 항로>의 제작사는 보성영화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³¹⁾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주장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한 것일까? 그것은 앞선 탁광의 회고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탁광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바탕하여 <끊어진 항로>의 제작사를 R.X.K프로덕션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탁광의 기억은 실제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애당초 사실 관계가 잘못된 주장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의 논의들은 그의 주장을 별다른 검증 없이 참조·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

25) 엽보화,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1950년 2월, 130쪽

26) 『본사사령』, 『군산신문』, 1947.11.21, 1947.12.27, 1쪽

27) 황태목, 2019, 『영화인 이만홍의 영화계 활동 연구』, 『우리문화연구』 64, 우리문화회 참조

28)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한국영화인정보조사
<http://www.kmdb.or.kr/db/per/00004532>(검색일: 2022.9.15.)

2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gunsan&dataType=0301>(검색일: 2022.9.15.)

30) 황태목,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 연구』, 앞의 논문 참조.

31) 보성영화사가 <끊어진 항로>를 제작한 사실을 전하는 신문기사와 영화 개봉 광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人, 資材 等の 隘路를 克服코, <끊어진 航路> 撮影終了, 八月五日頃 群山·서울·釜山 等지서 同時封切, 『군산신문』, 1948.7.28. / 『에스프리』의 貧困 -<映畫 끊어진 航路>를 보고, 『군산신문』, 1948.8.27. / 『광고, 끊어진 航路』, 『부산신문』, 1948.10.13. / 『광고, 끊어진 航路』, 『평화일보』, 1948.12.22.

으로 재생산해왔던 것이다.³²⁾

여하간 이 같은 기록을 통해 해방기 군산에서 전북영화사가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산이 전북영화의 원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그곳에서 영화가 제작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산지역 영화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 군산에서 발행한 일간 신문 가운데³³⁾ 확인이 가능한 『군산신문』(1947.11.15.-1949.6.25.)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신문과 문헌(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참고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방기 군산에는 총 3개의 영화제작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제작사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해방기 전북지역 영화제작사 현황

영화제작사명	사장/제작자	감독	활동기간(추정)	작품
동양영화사(東洋映畫社)	김석활	이만홍	1947-1948	
보성영화사(寶星映畫社)	김금철(金今哲)	이만홍	1948-1949	<끊어진 항로>
김보철프로덕션	김보철(金寶哲)	한형모	1949	<성벽을 뚫고>

당대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해방기 군산에 3개의 영화제작사가 있었다는 것, 둘째 영화 <끊어진 항로>는 보성영화사에서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 셋째 영화 <성벽을 뚫고>는 김보철프로덕션이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기록에 의하면, 군산에 최초로 설립된 영화제작사는 동양영화사이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서 정확한 설립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947년 12월 5일자 『군산신문』에 영화배우연구생 50명을 모집한다는 광고 기사가 실리는 것으로 봐서³⁴⁾, 1947년 12월 전에 설립되어 관련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동양영화사의 주소는 군산부 장미동 38번지(현 군산근대역사 박물관 앞)로 되어 있고, 이만홍 감독과 함께 제1회 작품 <상해로 가는 동포

32) 따라서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군산문화대전에 표기된 영화제작사의 오류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3) 해방기 군산에서 간행된 일간지는 김관술의 『신광일보』(1945년 9월 20일 창간), 차군향의 『남선일보』, 육복술의 『군산민보』(1946년 5월 1일 창간), 김종량의 『군산신문』(1947년 11월 15일 창간) 등이 있다.

34) 『映畫俳優研究生募集』, 『군산신문』, 1947.12.5, 1쪽

들>(이후 <怒히는 조선>으로 개제)을 촬영 중이라고 되어 있다.³⁵⁾ 또한 1948년 1월 27일자 신문 기사에는 새로운 이사진으로 영화사 진용을 강화했다는 기록도 보인다.³⁶⁾ 이 기사에 따르면, 이사장에 장준식(張俊植), 이사에는 김봉희(金鳳熙), 육복술(陸福術), 김숙현, 김진택, 박남규, 장득조, 김택남 등이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장준식은 당시 군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김봉희는 반공테러단체인 ‘협력대’를 이끌며 군산극장과 희서관 및 군산영극주식회사(群山映劇株式會社)의 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육복술은 신문사 사장과 우익반공단체인 ‘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양영화사는 당시 지역 유지들의 합자회사이자 우익 인사들의 반공예술단체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이사진 면면과 이들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해 보면, 동양영화사가 기획한 <怒히는 조선>은 우파적 시각에서 반공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계몽영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48년 3월 9일자 광고³⁷⁾를 마지막으로 영화사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영화를 개봉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동양영화사 역시 이 무렵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문에서는 보성영화사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 확인된다.

郷土文化向上에 이바지하고자 誕生하였든 寶星映畫社에서는 誕生以來에 資財不足 等の 隘路 等으로 일직부터 計劃을 세웠든 第一回 作品으로써 『끊어진 航路』의 現지 촬영에 着手하였으나 亦是 財源 不足과 技術 不足 等이 併行하여 圓熟함을 보지못하고 邈邈한가운데 數個月를 經過했스나 何等의 成果를 보지못하였든바 이에 金社長을 비롯하여 社內 組織 改編을 하는 한便 中央廳과 連絡하여 中央에서 著名한 演技者 및 技師를 招빙하여 드디어 지난 三日부터 地境을 비롯하여 群山 一帶에 亘하여 촬영을 始作하여 그의 結果가 매우 期待되든바 金社長을 비롯하여 監修 全昌根 監督 이萬興 촬영 黃漢조 其他 이集길 劉계仙 金永姬 等の 主役 下에 着着 進보되어 製作費 五百萬圓의 巨額으로 지난 十八日 촬영도 一段落되었슴으로 公報部의 檢閱를 거쳐 오는 八月 五日 頃에는 群山 釜山 서울 等지에서 文化

35) 『資本金 二百萬으로 東洋映畫社 發足 一回 作品은 <上海로 떠난 同胞들>』, 『군산신문』, 1947.12.5. 2쪽

36) 『동양영화사 진용강화』, 『군산신문』, 1948.1.27, 2쪽.

37) 『동양영화사 사업부 아카데미 <카메라> 구락부 회원모집』, 『군산신문』, 1948.3.9, 2쪽

映畫와 아울러 同時封切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此 「끊어진 航路」는 製作日 數個月을 妻하고 前述한바와 갓치 中央의 一流 演技者의 多數 出演으로 都市文化面에 도움이 되는바 잇을 것이라 하는바 이에 앞서 오는 八月 二日에는 府內의 官公署 및 社會團體를 비롯하여 試寫會를 開催할 것이라고 하며 또 이에 第二回 作品(還鄉의 一夜)를 製作費 八百萬圓의 豫算으로 촬영을 始作할 豫定이라하는바 群山에서는 유사 以來에 처음일인바 압으로 그의 發展이 크게 期待되는바라고한다.³⁸⁾(강조-인용자)

위 기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끊어진 항로>는 향토문화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 둘째 <끊어진 항로>의 촬영은 재정 부족과 기술 부족 등으로 수개월 지체되었다는 것, 셋째 <끊어진 항로>의 제작비는 500만 원이 들었다는 것, 넷째 <끊어진 항로>의 촬영지는 군산 일대이었다는 것, 다섯째 <끊어진 항로>의 감수는 전창근, 감독은 이만홍, 촬영은 황한조가 맡았으며, 이집길, 유계선, 김영희, 이강천 등이 배우로 출연하였다는 것, 여섯째 1948년 8월 2일 군산부내에서 <성벽을 뚫고>의 시사회를 개최하겠다는 것, 일곱째 8백만 원의 예산으로 제2회 작품 <환향의 일야>의 촬영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보성영화사의 설립에 관한 기록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동양영화사에서 감독으로 활동하던 이만홍이 보성영화사에서 <끊어진 항로>의 감독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과 <끊어진 항로>의 제작이 수개월 지체되다가 1948년 7월 18일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보성영화사는 1948년 초순쯤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보성영화사의 주소지는 군산부 세미동 16번지(현 장미동 15-1 군산시 농수산물 홍보 갤러리 주변)로 되어 있는데,³⁹⁾ 세미동은 장미동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기사에서는 <끊어진 항로>를 김 사장에 의해 제작된 영화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1950년 2월 간행된 『대한민국인사록』에는 김금철(金今哲)이 보성영화사 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헌에 따르면, 김금철(1921-?)은 전라북도 김제군 출신으로 현재 나이는 28세, 현주소는 전라북도 군산부 죽성동 24, 학력으로는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전기연구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

38) 「人, 資材 等の 隘路를 克服코, <끊어진 航路> 撮影終了, 八月五日頃 群山·서울·釜山 等지서 同時封切」, 앞의 신문 참조

39) 「해방 후 설립된 영화회사 현황」, 『경향신문』, 1948.10.26.

력으로는 일본 동보영화사(東寶映畫社) 직계상설관 감독기사와 파라마운트(paramount) 영화사 동경지점 조수기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도자기공업사 전무이사와 보성영화사 사장, 기타 요직으로 8·15 이과학연구소 소장과 전북석유조합 이사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⁴⁰⁾ 이와 함께 이만홍은 보성영화사의 연출 감독으로, 이강천은 미술 감독을 맡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성영화사가 제작한 <끊어진 항로>는 이집길과 유계선, 이강천 등이 주연을 맡아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밀수근절 이야기를 다룬 16mm 영화로 알려져 있다. 해방 후의 작품이라 계몽적이고 시류에 편승한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타깝게도 필름이 유실되어 현재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탁광에 의하면, 1948년 여름 전주극장에서 개봉되었지만 영사기 문제로 1시간 20분가량의 영화가 50분에 끝나버리는 바람에 흥행 면에서 완전 실패하였다고 한다.⁴¹⁾ 위의 신문기사에서는 제2회 작품 <환향의 일야>의 촬영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후 영화 제작이나 상영에 대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⁴²⁾

흥미로운 것은 보성영화사의 활동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김보철프로덕션이 등장하여 새로운 영화가 제작된다는 사실이다. 여순사건을 최초로 극화한 35mm 반공영화 <성벽을 뚫고>가 그것이다. 영화는 대학 동기동창이자 처남 매부사이인 공산주의자와 육군 소위가 이념의 차이로 갈라져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 정작 영화가 관객의 흥미를 이끈 건 전반부에 나온 남녀주인공의 러브신과 기계식 촬영 등 기술적인 우위성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벽을 뚫고>는 1949년 10월 4일 국제극장(서울)에서 개봉할 당시 관람 인원이 100,000명에 달했으며(한국영상자료원 기록), 1952년 8월 25일 자유극장(대구)에서 재상영할 정도로 흥행과 완성도에서 모두 성공한 작품이라고 당시의 기록은 전한다.⁴³⁾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

40) 엮보화, 『대한민국인사록』, 앞의 책, 26쪽

41) 탁광, 『전북문단이면사』, 앞의 책, 162쪽 참조.

42) 한 예로 『군산신문』 1948년 8월 19일자에는 보성영화사의 해방 축하 광고가 실려 있지만 이듬해에는 보성영화사와 관련한 기사나 광고가 전혀 없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감안하면 보성영화사의 활동은 1948년 말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한형모 감독의 이 작품은 진정한 자유의 민주적 주제의식이 대중의 공감을 크게 샀고 종래와 다른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어 영화다운 영화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우수한 녹음, 선명한 화면을 보인 카메라 워크, 미묘한 편집기술 등이 결과적으로 <자유만세> 이후 36mm 스탠다드 흑백 영화로서의 품격을 잘 갖춘 것이었다. 관객이 밀려들고 호평을 받았다.” 국제영화사 편, 1969, 『영화연예연감』, 국제영화사, 189쪽

세>(1947)와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1947)과 함께 해방기 한국영화 베스트 3에 꼽히는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3. <성벽을 뚫고> 광고
(『조선일보』, 1949.9.3.)



그림 4. <성벽을 뚫고> 광고
(『동아일보』, 1952.8.22)

당시 신문에 게재된 영화 광고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성벽을 뚫고>는 전쟁 전후에 상영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영화 광고에는 전북(군산과 익산)에 주둔한 보병 제5사단 제3연대(대대장 함준호)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작사 측이 군의 지원을 얻고자 군 당국의 선전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당시만 해도 민간 영화제작사가 군의 지원이나 협조 없이 반공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이다.⁴⁴⁾ 그렇지만 관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벽을 뚫고>를 제작한 주체는 김보철프로덕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여하간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와 공보처를 통해 공산당을 배격하는 반공영화를 여러 편 만들었는데, <성벽을 뚫고> 역시 국방부와 공보처의 자금 지원으로 제작된 전형적인 반공영화였다.

한형모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 이 영화에는 김영수(각본), 고해진(조명), 박경원(촬영), 김정향(미술), 양주남(편집·녹음) 등이 스태프로 참여하였으며, 이 집길, 복혜숙, 서월영, 박경석, 현인, 황해(데뷔작) 등은 배우로 출연하였다. 군산과 변산 일대가 주 촬영지였다고 하나 영화의 필름이 소실되어 아쉽게도 현

44) “그 때만 해도 시국이 시국이라 멜로드라마를 만들어 봤자 별 재미도 못보고 제작하는 사람들도 관이나 군의 협조없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 엄두도 낼 수 없는 때였다. 거기에서 경찰이나 군에서는 제작자에 편승하여 자기선전을 하려고 하던 때라 쉽게 경찰이나 군 당국에서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애정산맥>, <성벽을 뚫고> 등이다.”(탁광, 앞의 책, 72쪽)

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김보철프로덕션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언제, 어디에 설립되었는지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성영화사에서 연출 감독으로 활동하던 이만홍이 김보철프로덕션으로 영화사를 옮긴 시점과 <성벽을 뚫고>에 배우와 스템으로 참여한 이들의 전작 영화 <여명>이 1948년 10월 9일 중앙극장(서울)에서 개봉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김보철프로덕션은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 무렵에 활동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작자인 김보철은 해방기 이후 영화사에서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⁴⁵⁾ 한국전쟁 중에는 부산의 국방부 촬영대에 합류하여 중군기록영화인 <정의의 진격> 1부(감독 한형모) 촬영을 담당하였고, 1957년에서 1961년 사이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⁴⁶⁾ 1962년 1월 25일(음력) 작고하기까지 적어도 3개의 영화제작사 대표를 역임하며 8편의 영화를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그동안의 주장은 애초부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보철이 제작자로 참여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⁴⁷⁾

표 4. 작품 목록

영화제작사명	소재지	제작자	감독	각본	작품(연도)	장르
김보철프로덕션	군산	김보철	한형모	김영수	<성벽을 뚫고>(1949)	반공
고려영화사	서울	김보철	김성민	김성민	<북위 41도>(1954)	액션·군사
고려영화사	서울	김보철	김성민	유두연	<막난이 비사>(1955)	시대극
고려영화사	서울	김보철	양주남	오영진	<배뱅이 굶>(1957)	사극·판타지
고려영화사	서울	김보철	김수용	이태환	<공처가>(1958)	코미디
화심영화사	서울	김보철	김수용	이태환	<애상>(1959)	멜로
아카데미영화사	서울	김보철	이태환	이태환	<스타탄생>(1960)	코미디
화심영화사	서울	김보철	유두연	유두연	<무지개>(1960)	멜로
화심영화사	서울	김보철	김수용	이태환	<일편단심>(1961)	사극·시대극

45) 탁광, 위의 책, 174쪽과 『전북영화 수준 과시한 전쟁영화』, 『전북일보』, 1999.2.10일자 기사 참조.

46) 감독협회, 배우협회, 기술자협회 등의 영화인단체가 1955년을 전후하여 형성된 것에 비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이보다 늦은 1957년 2월 28일에 발족하였다. 김보철은 이 단체의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1962년 1월에는 부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레 사망하여 부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보철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참여 기록에 대해서는 이영일, 1969, 『한국영화전사』, 한국영화인협회, 294-297쪽 / 『회장에 이재명씨, 영화제작자 협회 부회장 김보철』, 『동아일보』, 1962.2.1일자 기사 참조.

47) 작품 목록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영화인 정보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그림 5. 김보철 사진
(출전: 한국영상자료원)



좌로부터 김보철, 전조명(조감독), 김수용(감독)
그림 6. <공처가> 촬영 장소 헌팅 기념사진
(출전: 김수용, 『나의 사랑 씨네마』, 씨네21, 2005.)

김보철의 장남 김재우의 증언에 의하면, 김보철은 1918년 12월 18일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면 성호동에서 금광을 소유한 재력가 김의홍(金宜弘)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의홍은 일제강점기 영변에 학교를 세워 민족계몽 운동에 앞장섰다고 하며, 가산을 독립군에게 헌납한 애국 인사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김의홍의 집안은 평안북도 영변에서 부호로 이름난 명가문이었으나 일제 때 가족들이 모두 충청남도 공주군 신상면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보철은 공주군 신상면의 유구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열이 남다른 부모님의 뜻에 따라 동경의 일본대학 예술학부 문예창작과에 진학, 일본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보철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관계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소설가 김보성(金寶星)이 이복누이고 시인 설창수(薛昌洙)와는 처남매부사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김보철의 영화 제작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일정 부분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보철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 시점과 조선으로 귀국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동년배 이복누이인 김보성이 1940년에 일본대학 예술학부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가 1944년 4월 조선에서 설창수와 결혼식을 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김보철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유학길에 올랐다가 조선에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보철이 고향에서 군산으로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의 영화계 활동으로 유추해 본다면, 1948년 이전에는 군산에 내려와서 터를 잡고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들은 앞으로 좀 더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하간 김보철은 해방 후 군산에서 본격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김보철프로덕션의 활동 시기와 맞닿아 있다. <성벽을 뚫고>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김보철은 재능 있는 제작자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정작 김보철프로덕션은 전쟁으로 영화제작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당대 영화제작사에 관한 이영일의 평가를 보면 군산의 영화사들도 영화 한 작품을 위해 그때그때 자본과 인력이 동원된 영화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대부분의 영화 인력들이 제작 자본에 이끌려 그때그때 움직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⁴⁸⁾ 이처럼 많은 영화인들이 전란을 피해 피난지로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보철은 부산으로 활동 지역을 바꾸면서 군산 생활을 마감한다.

그런데 김보철의 군산에서 영화제작 경험은 부산의 국방부 정훈국의 국방뉴스 제작 참여로 다시 발현되어 나타난다. 당시 정훈국의 뉴스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으로는 촬영기사에 김보철, 양주남, 김창수, 김학성, 홍일명, 심재홍, 김덕진, 이성춘, 변인집, 노희삼, 편집기사로는 김희수가 있었고, <성벽을 뚫고> 감독이었던 한형모와는 <정의의 진격>(1951) 1부에서 다시 감독과 촬영으로 해후하게 된다. 이처럼 김보철은 정부가 환도하기까지 전쟁 기간 부산에서 <국방뉴스>와 <백민인의 별> 등의 국군홍보영화 총 49편 제작에 참여하는 왕성한 영화계 활동을 보여준다.

한편 휴전이 성립된 이후 대다수의 영화 자본과 인력이 환도하게 됨에 따라 김보철도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이후 그는 1955년 발족한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창립회원으로 활약하면서 액션영화 <북위 41도>(1954)를 시작으로 <일편단심>(1961)에 이르기까지 8편의 극영화를 제작하는 실적을 거둔다. 영화 <공처가>에서 김수용을 감독으로 데뷔시킨 이후 두 사람은 제작자와 감독으로 콤피를 이루며 <애상>, <일편단심>에 이르기까지 3편의 영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보철은 50년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영화계에서 제작자로서 활동을 이어가지만 1962년 1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영화계 활동도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48) “영화제작은 물론 서울이 어디까지나 총집산지였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지방에서도 영화가 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 (1) 어느 정도 항구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제작소 (2) 수시로 지방 출자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작하는 경우. 이 중에서 대부분은 (2)의 경우이었다. 즉 지방 출자자가 나타나면 스태프, 카스트를 지방에 불러 내려서 한 작품을 하면 곧 해산했다.”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앞의 책, 118쪽

제작자로서 그의 데뷔작인 <성벽을 뚫고>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들어서는 흥행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발전에 대한 열의와 영화작업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만큼은 영화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영화제작자로서의 김보철의 면모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영화계에 뜻을 두고 영화계에 투신하여 해방 이후 이 땅의 영화계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통감한 씨는 진정한 영화 육성에 심혈을 기울려 보다 나은 영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그의 온 정력과 재력을 다 기울여 제작에 착수하였다. 별로 많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한 작품이라도 진지한 방향으로 다루어 보겠다고 하는 씨는 영화계에 투신한 이래 『공처가』, 『愛想』, 『배뱅이 굿』, 『망난이 悲史』 등을 위시하여 최근에 이르러선 『무지개』를 제작하여 완성하고 있다. (중략) 씨만큼 방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혼잡하고 긴박한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어떻게하면 타개할 것이며 한국영화계의 보다 나은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폭등하는 외화의 기세를 견제하고 방화의 육성 발전을 기하고자 영화정책면이라던가 실제적인 제작면에 나서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중년의 제작가. 현재는 영화 제작인의 『씨시스템』 합동공사에 있으며 제작 생활의 여음이 없는 것이다.⁴⁹⁾

한국영화계의 현실을 정리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에서 김보철은 ‘방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드문 존재’로 언급되고 있다. 위의 글은 한국영화계의 현실을 돌아보며 ‘외화의 기세를 견제하고 방화의 육성 발전을 기하고자 정책과 제작 면에서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김보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김보철은 진정한 영화 육성에 온 힘을 쏟는 제작자로서 한국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기록을 근거로 보면 김보철은 시대적, 정치적 조류에 편승하여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했던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영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어갔던 선구적인 제작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적지 않으며, 그의 영화계 활동과 업적 역시 이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9) 『映畫界 主軸들-精力과 財力을 映畫에 바친 金寶哲 君』, 《국제영화》, 1960년 8월호, 121쪽

4. 김금철과 김보철의 관련성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보성영화사의 제작자 김금철과 김보철프로덕션의 제작자 김보철의 관계이다. 앞서 소개한 두 사람의 출신과 약력으로 본다면, 둘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김보철의 등장과 함께 김금철이라는 이름을 영화계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이만홍(李萬興, 1923-2016)이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유사성은 둘이 동일인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따져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김금철과 김보철의 관련성을 넘어 두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에 대해 그 근거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정황의 개연성이다. 특히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영화를 제작한 점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대한민국인사록』에서 김금철은 일본에서 동보영화사(토호영화사) 직계상설관 감독기사와 파라마운드 영화사 동경지점 조수기사를 역임한 경력으로 현재 보성영화사 사장에 재직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보성영화사의 활동을 전후로 한국 영화계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제작자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에서 김금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영화인은 활동연대가 2000년대인 시나리오 작가라고 기록되어 있어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인사록』 외에는 보성영화사 사장이 김금철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여기에 김보철프로덕션의 활동 시점과 보성영화사의 해산 시점이 고스란히 겹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영화사에서 이름까지 비슷한 두 사람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제작자로 나란히 활동했던 예는 이 경우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아주 드문 본보기인 것이다. 그런 만큼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김금철과 김보철은 동일인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이만홍과의 접점이 다. 현재 드러난 바로 볼 때, 군산에서 이만홍의 영화계 활동은 보성영화사와 김보철프로덕션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함경남도 안변 출신인 이만홍이 해방 후 군산에 정착하여 영화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과의 친분이거나 인연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만홍이 김금

철과 얽힌 자리를 살펴보면, 보성영화사에서 <끊어진 향로>를 제작한 일이 한 차례 눈에 든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교류나 접점을 이 경우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이만홍과 김보철은 군산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이전과 이후의 행보를 놓고 볼 때도 여러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이북에서 출생하였지만 군산에 머물면서 영화 작업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해방기 군산에서 활동한 영화인 가운데서 그런 이력을 가진 이는 이만홍과 김보철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일본 동경의 일본대학 예술학부에서 유학을 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대학 예술학부는 두 사람이 함께 유학을 한 곳이기에 일본에서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금철은 보성영화사가 해체되자 이만홍을 김보철프로덕션으로 이끌어 새로운 영화를 기획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영화계 활동 기간이 겹쳐 있을 뿐만 아니라 김보철이 작고한 시점에 이만홍의 영화계 활동도 장기간 공백기에 접어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만홍의 차남 이청정은 생전에 부친이 영화계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친우가 갑작스레 죽은 뒤로 영화계에서 위축되었다는 일화를 전하고,⁵⁰⁾ 김보철의 장남 김재우 역시 부친이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과 군산에서 영화 제작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바 있다. 김보철과 이만홍 사이의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살펴볼 때, 둘 사이에 김금철의 등장은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리 보면 김금철 역시 이만홍과 친분관계에 있던 김보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두 영화사의 이름에서 공통적인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성영화사와 김보철프로덕션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보(寶)라는 글자가 삽입되어 있다. 일례로 김보철프로덕션의 표기를 보면 공통 글자 보를 포함하는 제작자 김보철의 이름이 그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보철의 이북누이인 김보성의 이름을 가져와 영화사에 결합하면 이와 같은 공통된 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영화사의 이름은 매우 특이한 형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성영화사와 김보철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은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역시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50) 황태목, 『영화인 이만홍의 영화계 활동 연구』, 앞의 논문 759-760쪽 참조.

앞서 탁광은 영화계에서 김보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언급하며 가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⁵¹⁾ 이는 한편으로 당대 영화계에 가명을 쓰는 경향이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기록은 김금철이 김보철의 가명이거나 김금철과 김보철이 맞물려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 보면 두 영화사의 명칭에서 이복남매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이나 보성영화사의 해체 이후 김금철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나 김보철과 이만홍이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5. 나가는 말

이 글은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과 군산지역 영화사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형성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북영화사 서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수정하고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부분적이거나 해방기 군산에서 활동했던 영화제작사와 영화인들의 흔적과 궤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당시 문헌들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영화사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전북영화사와 한국영화사의 토대와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도모하였다.

실제로 김보철의 생애나 영화계 활동에 대한 기록은 전북영화사나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지역의 영화사나 영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영화적 자산들은 앞으로 한국영화사 연구의 빈틈을 메우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보철의 영화사적 의의는 해방기 군산과 전라북도에 걸쳐 영화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비록 그의 군산에서의 영화 제작은 전쟁의 여파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전북영화의 초석을 다지고 훗날 전북영화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영화인들을 다수 발굴하고 양성

51) 탁광, 앞의 책, 174쪽 참조.

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만홍, 한형모, 이강천, 황해, 김수용, 이집길 등의 배우와 감독이 그가 제작한 영화를 통해 훗날 한국 영화계의 주역으로 발돋움한 사실 역시 영화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는 일이 될 것이다. 해방기 보성영화사와 김보철프로덕션의 영화 제작을 계기로 전북의 극영화 제작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1950년대 전주의 우주영화사에서 제작한 <애정산맥>(이만홍, 1952)을 시발점으로 <탁류>(이만홍, 1954), <아리랑>(이강천, 1954), <피아골>(이강천, 1955), <선화공주>(이강천, 1957) 등의 흥행작들이 전주에서 연달아 제작되면서 전북영화계는 다시 한 번 한국영화사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방기 김보철의 영화계 활동은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글이 해방기 전북영화사의 형성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1차 사료인 필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글에서 김보철의 전기적 행적이 부분적이거나 복원된 것은 성과라 하겠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로 나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더불어 논의 과정에서 김보철과 김금철이 동일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정황 증거와 추론에 의지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들은 후속 연구로 이어가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3. 02. 09. / 심사개시일: 2023. 04. 07. / 게재확정일: 2023. 04. 10.

참고문헌

1. 기초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경향신문』, 『군산신문』, 『일간 예술통신』, 『매일신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영남신문』

2. 단행본

국제영화사 편, 1960, 1961, 『영화연예연감』, 국제영화사.

김남석, 2020, 『전북의 지역 극장』,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김수용, 2005, 『나의 사랑 씨네마』, 씨네21.

염보화, 1950.2,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영화진흥공사 편, 1977,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위경혜, 2012, 『호남의 극장문화사』, 다할미디어.

이영일, 1969, 『한국영화전사』, 한국영화인협회.

조시돈, 김건, 이미경, 김광희, 2006, 『전북영화사』, 신아출판사.

탁 광, 1995, 『전북영화이면사』, 한국영화인협회전북지부.

한국영상자료원 편, 2004, 『한국영화를 말한다: 1950년대 한국영화』, 이체.

한국영화진흥조합 편, 1972, 『한국영화총서』, 한국영화진흥조합.

3. 논문

김건, 김용, 2013, 「1950-60년대 전북영화사: 한국영화, 그 고향을 찾아서」, 『전북사학』 43호, 299-328쪽.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 도시 특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0권 2호, 74-99쪽.

장준갑, 김건, 이상훈, 2014, 「전북의 극장사」, 『전북사학』 45호, 323-352쪽.

정봉석, 1997, 「부산영화사」, 『항도부산』 14호, 324-373쪽.

정종화, 2001, 「대구 지역 영화사」, 『영상예술연구』 1호, 207-226쪽.

황태묵, 2015,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 연구」, 『우리문학연구』 48집, 427-453쪽.

황태목, 2019, 「이만홍의 영화계 활동 연구」, 『우리문학연구』 64집, 737-764쪽.

4. 기타자료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

한국영상자료원 데이터베이스, KMDb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Film History in Jeonbuk

Hwang, Tae-muk*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formation process of Jeonbuk film histor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focusing on Kim Bo-cheol's activities in the film industry and the production process of film history in Gunsan. In the process, I tried to correct and demonstrate misinformation and errors related to the narrative of Jeonbuk film history. This article has its own significance in that it was able to identify the traces and trajectories of film production companies and filmmakers who were active in Gunsa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n particular, through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of the time, this article has sought to identify the actual filmmak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film and to expand the foundations and horizons of Jeonbuk film history and Korean film history by identifying the process of Kim Bo-cheol's activities in the film industry, about which little has been known until now. In fact, there is no record of Kim Bo-cheol's life or film industry activities in Jeonbuk film history or Korean film history studies, and we believe that th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paid to them is due to the lack of active research on local film history and filmmakers. However, I believe that these local cinematic assets should be utilized as information to fill the gaps in Korean film history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 Liberation Period, Film History in Jeonbuk, Dongyang Films, Boseong Films, Kim Bo-cheol Production, Kim Bo-cheol, Kim Geum-cheol, Lee Man-heung

* Full-time Researcher, Humanities City Center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